

### 제3지대, 전국 돌며 한 표 호소

# 지지율 끌어올리기 '안간힘'

4·10 총선 선거운동 첫 주말인 지난달 30일 제3지대 정당들은 수도권과 호남 등 전국 각지를 찾아 유세전을 펼쳤다.

먼저,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를 찾아 강순아 제주를 후보 지지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권심판"이라며 "어떤 심판이나, 누가, 어떻게 심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들이 하나같이 정권심판을 외치고 있지만 노동자, 농민과 기후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이야기하는 정당은 녹색정의당뿐"이라며 "강순아 후보가 앞장서서 명맥이 끊긴 제주도 출신 진보정당 국회의원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대선 후보 당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어기고 43 추념식을 의면하는 윤석열 정권을 녹색정의당이 확실하게 심판하겠다"고 외쳤다. 새로운미래의 총선을 지휘하는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정영호(광산갑), 이낙연(광산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례 후보, 지지자들이 지난달 30일 익산역에서 필승을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녹색정의당, 제주서 강순아 제주를 후보 지지 호소 새로운미래, 이낙연 등 광주지역 후보자 지원사격 조국혁신당, 군산·익산 찾아 표밭 다지기 나서

박병석(북구을) 후보를 지원사격하듯 인선 부평을 이통해 홍영표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오 위원장은 "권력을 마구 남용하는 나쁜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하는 제1야당 민주당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닮아가고 있다"며 "제대로

된 성과 한 번 내지 못하고 또다시 국민들께 갈등과 보복만 남은 선거를 강요해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함께 유세에 나선 이낙연 후보도 "광주가 민주성지에 맞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려면 '묻지마 투표'는 이제

줄임하고 '따져보고' 투표로 전환해야 한다"며 "땀나 피나 쓰고 독한 짓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판치는 그런 풍조를 원치 않으신다면 새로운미래에게 일을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경기 화성정을 찾아 자당 이원욱 후보 유세 지지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군산과 익산, 광주, 여수 등 호남권을 찾아 표밭을 다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중앙호수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원한 '범죄자 연대'는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이라며 "선량한 시민은 여기 계산 애국 시민이고 우리가 심판해야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앞서 전북 익산역에서 열린 유세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헛꿈 깨라고 말씀드리고 싶다"이라며 "1호 법안으로 낸 한동훈 특검법(총선 후) 민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발의할 것"이라고 민주당과의 연대 의지를 강조했다.

/뉴스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 대회실에서 열린 제43대 임상규 행정부지사 이임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송상재 노조위원장이 감사패를 전하고 있다.

## "전북자치도 출범 함께해서 영광"

### 임상규 행정부지사 이임식... 자치도 출범 견인 특목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11조원대 기업유치 등 지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안착에 기여한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이임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9일 도청 대회실에서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에 대한 이임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김관영 도지사와 도·실·국·원 간부 공무원 및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수여, 송별사, 이임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임 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가 한창이던 2023년 4월 취임한 이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역대 최대 11조원 규모의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활기찬 근무 환경,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는 등 대내외적으로 도정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송별사에서 "관용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발휘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시작과 안착을 이끌었다"며 "새로운 도정을

뜻깊은 성과로 만들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의 담대한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전북의 저력을 바탕으로 모두 힘을 합치면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의 꿈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응원했다.

이어, "비록 도정은 떠나지만 당당한 전북인의 한사람으로서,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안전관리정책관 등 도와 중앙부처 요직을 두루 역임한 명실상부한 행정 전문가다.

/김재훈 기자



민주 전주지역 총선 후보자들 필승 다짐을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부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전주 시 완산구 꽃밭정에서 사거리를 방문해 후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필승을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

## 총선 인식... 정부 견제 57%·정부 지원 38%

### 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20대·무당층서 견제론 70% 넘어

오는 4·10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이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정부 지원론'을 19%포인트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달 30일 나왔다.

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야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7%로 집계됐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로 나왔다.

'정부·야당 지원론'은 대구·경북(48%)과 대전·충청·세종·강원

(47%), 여성(39%), 60대(51%)와 70대 이상(55%) 고연령층,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89%), 국민의힘 지지층(8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야당 견제론'은 광주·전라·제주(72%)와 인천·경기(63%), 남성(60%), 20대(71%) 저연령대와 40대(68%) 허리 계층,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89%), 조국혁신당 지지층(93%)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8%)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정부 견제론이 71%로 가장 높았다. 40대(68%)와 50대(62%), 30대(53%)에서도 견제론이 지원론을 앞섰다. 70대 이상(55%)과 60대(51%)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견제론을 앞섰다.

정치 성향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85%가 야당 승리를 기대했다. 야당 지

지층에서는 조국혁신당 93%, 더불어민주당 86%, 녹색정의당 63%, 개혁신당 55%, 새로운미래 40% 순으로 야당 승리를 기대했다.

기타 정당에서는 정부 지원론(55%)이 견제론(36%)을 앞섰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지원론(17%)보다 견제론(70%)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8%)과 대전·충청·세종(48%)에서 지원론이, 광주·전라·제주(72%), 인천·경기(63%), 서울(53%) 등에서 견제론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무작위 추출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

## 군산시의회, 새만금 통합 논의 첫 물꼬

### 이건식 전 김제시장과 토론회 참석 상생방안 논의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최근 김제시민신문사에서 개최한 '새만금 통합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새만금 통합과 상생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영일 의장과 이

건식 전 김제시장이 참석해, 새만금 관할권 문제와 발전방안에 대해 군산과 김제의 입장의 논리를 펼치며, 열린 토론회를 이어 갔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이번 자리가 소통의 실마리를 푸는 징검다리였다

며 앞으로도 김제와 군산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노력하자며 앞으로도 대화를 나눌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의장도 새만금 통합에 대해 이견식 전 김제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새만금 관할권 및 상생통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다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는 지난달 29일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이만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제안했고, 정성철 의원은 '새마을부녀회의 노고와 헌신을 격려하고 권익을 증진하자'고 역설했다.

안건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이도형·박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한국지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명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했고, 서항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록) 소관으로 고경운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농업농업 고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후 임시회를 끝마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 원주군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위원 10명 위촉

원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지난달 29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위원 위촉'으로 선임된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심사위원은 유의식·김재천·이주갑 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회계사, 세무사 등)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위원에는 유의식 의원이 지명됐다.

위촉된 결산심사위원은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원주군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재산, 채권, 채무 등을 심사한다.

유의식 대표위원은 "예산과 사업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남비 요소는 없었는지 등 중점적으로 검토해 결산 검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남용 의장은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결산심사위원들이 위촉돼 기대가 크다"며 "결산심사는 조직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 만큼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 새미래 전북 후보들, 선거운동 본격

### 신원식 후보, 출정식 열고 '지역경제 부활 선언'

### 신재용·한기대 후보도 유권자들에 지지 호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대 신당 새로운미래 전북 후보자 3명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먼저, 신원식 후보(전주갑)는 지난달 29일 오후 평화동 꽃밭정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출정식에서 신원식 후보는 거대 양당 구도의 폐해를 지적하고 지역경제 부활을 선언했다.

출정식에는 100여명의 중앙당 유세단과 당원, 지지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신 후보는 "지역 정서에만 편승한 기존 정치인들이 민생을 외면했다"면서 "신원식은 국정 경험을 갖추고 기업 경력도 가진 검증된 인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캠버리로 얼룩진 새만금에 삼성그룹의 초대형 투자를 유치해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익산갑에 출마하는 신재용 후보는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그린소풍, 홀플러스 선화사거리, 원광대학교, 전북 특성화캠퍼스, 익산역 앞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다.

29일 원광대학교병원 앞에서 캠프 출정식을 열고 필승을 다짐했다. 남원장수임실순창에 출마하는 한기대 후보도 지난달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남원시 왕정동 세계로약국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자리에서 중앙당 유세단원들이 한 후보



새로운미래 신원식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달 29일 전주 완산구 꽃밭정에서 사거리를 유세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

와 함께 했다.

경제·금융계 인사인 한 후보는 지난달 15일 "민생을 위한 금융의 공공성을 실현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후보들은 선거일 전날인 9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일정에 돌입하며,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별취재반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